



2월의 사양관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일반 사양관리

기축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한달이 지났다. 이제 다음 달이면 새 봄이 시작된다. 겨우내 움추렸던 마음을 펴고 축사 환기와 청소를 통해 새로운 마음가짐을 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새해에 결심했던 계획들을 점검하고 작심 3일 아니 작심 1개월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기록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산성 향상과 병행하여 유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와 번식을 향상을 위해 균형영양관리와 발정 발견을 향상을 위한 실천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월간 납유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착유우를 정예화하여 적은 착유두수로 납유량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의 경영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사육하고 있는 모든 젖소들은 개체별로 생산성 및 수익과 관련된 번식기록(임신, 발정상황, 수정횟수, 공태기간), 산유량, 산차, 유지율, 체세포수, 건강상태, 유방염 감염여부 등의 사항을 분석하여 경제성이 없는 개체는 선별하여 과감히 도태한다.

지난 해 7월 18일 기본원유가격 20.54%(120원) 인상 합의안이 도출되어 원유가격은 리터당 704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같은 납유량을 가지고 보다 높은 수취가격을 얻을 수 있는 유질강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송아지 및 후보축의 사양관리

송아지의 사육적온대는 10~20°C이다. 따라서 그러나 겨울철에는 외기온도가 10°C 이하에서 영하로 떨어지게 되므로 송아지가 체온을 적당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방풍이나 방습을 잘해 주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동물들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열을 생산해야 하는데, 체열은 급여한 사료나 체지방을 분해하여 얻으므로

충분한 양의 사료를 급여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초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분만후 빠른 시간 안에 충분한 초유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육성우는 농가에서 가장 소홀히 취급하기 쉬운 그룹이다. 그러나 이러한 육성우들이 차기 착유우 후보군으로서 농가 수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을 것이다. 육성우는 겨울철 온도가 내려가면 사료섭취량이 증가한다. 그러나 너무 큰 폭으로 기

온이 낮아지면 오히려 섭취량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육성우의 유지요구량은 일반적으로 여름보다 겨울이 약 24.7% 높기 때문에 겨울철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

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겨울철 기온저하로 인한 사료섭취량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

착유우 및 유질관리

나 유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은 유질향상을 통한 유대가격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유질향상을 위해서는 철저한 유방염 관리로 체세포수와 세균수를 낮추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체

세포수와 세균수 및 지방율을 기초로 한 현행 가격체계에서 품질에 따른 우유 판매가격 차이는 kg당 170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1일 1톤을 납유하는 목장의 경우 우유의 품질차이로 한 달에 500만원의 소득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1A 등급 우유가 생산될 수 있도록 세균수 관리 및 유방염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방역 및 위생관리

생 산비증가에 따른 수익성이 줄어든 만큼 질병관리에 더욱 유의하며 철저히 가축을 관찰하고, 환축우는 조기에 치료하여 약품비 및 폐사율을 줄이도록 한다. 질병에 걸린 젖소는 신속히 판단하여 치료와 도태를 결정한다.

○ 호흡기 질병 및 예방관리

여린송아지는 모든 생리기능이 약하므로 분만송아지에 대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한다. 특히 찬바람이나 섶바람을 막아주고 보온이 잘된 축사에서 사양하며 충분한 깔짚을 깔아준다. 축사 안은 청결하고 건조하게 해주어야 하고 공기가 탁하지 않도록 환기를 조절해주어야 한다. 또한 축사 안에 햇볕이 잘 들도록 하고 밀집 사육을 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소화기 질병 및 예방

조사료를 적게 급여하고 농후사료 위주의 사양을 하면

산독증이 발생된다. 이로 인하여 생산성과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유지방 감소, 번식장애 및 발굽질병까지 발생된다. 사료급여 중 적절한 유효한 섬유소가 들어 있도록 관리하여야 농후사료 과다급여로 오는 대사성질환을 막을 수 있다.

○ 발굽관리

젖소는 건강하고 편안한 상태에서는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젖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건강한 다리와 발굽의 사용이다. 대개 드러난 도태원인이나 질병 중 발굽질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15~16%정도지만 번식장애와 산유량감소의 원인이 된 발굽질병까지 감안하면 더욱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절한 발굽관리 위한 기준은 1) 불결한 주변 환경 피하고 건조하고 위생적인 환경 유지, 2) 갑작스런 배합비 변경 지양, 3) 일정한 기준에 의한 발굽손질(년 2회), 4) 발굽 소독조 지속적인 사용, 5) 미량 광물질 및 비타민 급여(아연, 망간, 구리, 코발트, 바이오틴)이다.